

# 조선시대 일본어 학습서의 한글 音注表記에 의한 일본어 清濁音의 음성적연구\*

趙 垺 熙\*\*

## 目 次

1. 머리말
2. 從來의 論과 問題點의 所在
3. 한글 音注의 음성적 性質
4. 清音에 표기되어 있는 音注의 음성적 特徵
5. 濁音에 표기되어 있는 音注의 음성적 特徵
6. 結 論

## 1. 머리말

조선시대 일본어 학습서에는 清濁音에 대한 「ひらがな」字體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平音表記, 硬音表記<sup>2)</sup>, 鼻音表記 등 다양한 音注表記가 나타난다.

なにかしこちこいそちかたいくわんにいてみか申 아므가히이러오라네代官의가내말로  
나닝가시고 찌고이소 쟁가다이관니이 때 밍가부수  
おとつゝいこもとゑくたて 그적과 여과 느려와  
오도 쭈이고고모도예군다 때  
きのうにもまいるお 어제라도 오을거슬  
기노우니모마이루오  
ろしのくたひれにいまこそもんまてまいてこそ御され 路次の긫브메이제야門 쓰지왓습니  
로시노구다비레니이마고 쏘 몬 만데마이 때 고 쏘오사레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KRF-2001-041-A00206)”

\*\* 순천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音聲音韻論)

- 1)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影印本은 『伊路波』(1972, 洛文社), 『覆刻木版本捷解新語』(1990, 흥문각), 『改修捷解新語』(1987, 京都大), 『重刊捷解新語』(1990, 흥문각)의 讀本類를 자료로 한다.
- 2) 다른 명칭으로 음향감에 근거한 된소리(최현배 1929), 濃音(河野 1945) 등과 음성학적 특성에 근거한 후두과열음(李崇寧 1954), glottalized(Chomsky & Halle 1968) 등이 있고, 조음방법에 대하여는 후두과열(金善琪 1933), 성문폐쇄후과열(小倉 1928), 성문압축(Chomsky & Halle 1968) 등 여러 견해가 있다.

<捷解新語 卷一1a>(고딕부분은 淸音의 硬音表記, 下線부분은 濁音으로 생각되는 音節)

한국어에 있어서 淸濁은 비변별적이고, 대립적 분포를 하지 않는 音素이기 때문에<sup>3)</sup> 일본어의 淸濁音에 非規範的인 다양한表記가 사용되고 있다<sup>4)</sup>. 이러한 다양한表記에 대하여 특정 音注의 기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音聲的 觀點에서의 考察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글 音注에 있어서 音素 연결에서 일어나는 音聲的 現象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학습서의 音注表記 체계는 아래와 같다.

淸音表記			
kk	k	ŋ-k	ŋk
ss	s	z n-s	n-z
tt	t	n-t	nt
h	p	m-p	mp
濁音表記			

이 연구에서는 일본어 淸濁音에 다양한 표기가 사용되고 있는 점에 注目하여, 그 곳에 사용되고 있는 한글 音注에는 일본인의 音韻體系로 구별할 수 없는 音聲的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考察하여 간다. 考察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淸濁音에 사용되고 있는 한글 音注의 변별적 자질을 발견하고, 音素 연결에서 일어나는 音聲的 現象을 감안하면서 淸濁表記의 音聲的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 2. 従来の論과 問題点의 所在

선행연구에서는 『捷解新語』(以下 原刊本)를 중심으로 淸濁音을 구분하고 인식했다는 입장에서, 특정 音注에 대한 기능을 고찰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A淸音에 표시되어 있는 硬音表示에 대하여,

- 語中 語尾에 있어서 有聲化를 막기 위한 것 - 浜田(1955a), 森田(1957)
- 일본어 악센트를 표시하는 것 - 森田(1957), 安田(1960)
- pitched 또는 stressed - Cho,Seung-Bog(1970)
- tense가 현저한 것 - 大友(1957a)

3) 일본어도 淸濁을 文字로서 구별하지 않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万葉仮名에서는 濁音 전용으로 쓰인 문자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지만, 平仮名.片仮名는 淸濁을 문자로서 구별하지 않는 체계를 가지고 성립한 것이다. 淸濁을 구별하는 문자와는 별도로, 音聲的으로 구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浜田(1971)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4) 『伊路波』 『捷解新語』 時期의 日本 文献에는 「... , ° , ' , "」 등의 淸濁符號를 사용하여 구분한 例가 많이 있다. 『伊路波』 『捷解新語』 에 있어서 한글 音注의 弱點(音注에 淸濁 區別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濁音節에 濁音符號를 표시하는 것이 학습하기에 容易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 주목 된다.

- 강조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것- 荒木(1975) 등이 있으며,
- B 濁音에 표시되어 있는 鼻音表示에 대해서는
- initial-glide의 鼻音 - 浜田(1952), 大友(1956)
- 第一方法 5)만이 鼻母音 - 森田(1957) 등이 있다.

즉, 音聲學的 觀點에서의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특히, 다음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音注에는 清濁에 대한 音韻的 對立이 없다. 音聲的으로는 [k]와 [g]가 있었다고 해도, 「はな(花)」와 「くさばな(草花)」의 「は」/「ば」의 對立關係와 같이 音聲對立보다 形態音韻論的 關係의 경우는 다르지만, 「あける」/「あげる」와 같은 有聲無聲의 對立을 가진 子音인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더구나 일본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清濁의 音韻的 對立을 中世末期以降로 보는 설도 있다<sup>5)</sup>.

(2)對立은 音韻的으로나 音聲的으로나 상대적 개념이다.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k對g의 對立은 k對t의 對立보다 작지만, g對ŋ보다 크다. 한편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k對g의 對立은 k對t의 對立보다 작은 것은 물론 g對ŋ보다도 작다. 音注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런 相對的 概念이 중요하다. 학습서의 다양한 音注도 대립의 상대적 개념에서 오는 것으로 音聲을 듣고, 다른 「音의 觀念」으로 聽覺의 文字化가 일어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다른 「音의 觀念」에 音聲的 事實이 內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3)학습서의 音注는 학습할 때 읽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글 音注도 국어의 音素 연결에서 일어나는 音聲的 現象이 일어난다. 「익기」(熟)와 「이끼」(苔)의 음성실현이 [ikki] [ikk'i] [ik'i]와 같이 같을때도 있고, 다를때도 있다. 하지만 「말할이」의 어휘 구성의 의식에 따라 [익'기]이면 [ikki]이고, [이'끼]이면 [ik'i]로 된다. 音注表記도 마찬가지이다. 즉, 「こころがかり」<原-6a>의 [코고로가가리]音注는 [kogorogagari] [kokorogagari] [kokorokagari] [kokorokakari] [kogorokakari] [kokorogakari]와 같이 실현될 수 있다. 어떻게 音聲的으로 실현되었는지는 「말할이의 의식」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清濁音節을 보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こころがかり」이므로 [코<sup>9</sup>로가<sup>9</sup>가리]이었으며, [kokorogakari]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硬音이 清音表記에 사용된 것은 有聲音·無聲音의 對立이 아니라, /-glottalized/, /+glottalized/의 대립이다. 한국어는 平音·氣音·硬音이 相關束을 이루고 있다. 清音「か」의 경우 硬音/까/ 平音/가/를 사용하고 있다. 氣音/카/가 사용된 例는 없다. 有聲音·無聲音의 구분 만을 생각한다면 氣音/카/를 표기해도 무방하며, 특히, 학습서의 音注表記가 非規範的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かな와 한글」 대조표에서는 「カキクケコ」를 「카키쿠케코」의 氣音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硬音은 긴장(tense), 氣音은 氣(aspirated)를 변별자질로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긴장과 氣가 없다고 보는 平音에 대해서도 Kim Chin-Wu(1967)등은 약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氣音에도 氣뿐만 아니라 긴장자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田相範 1976 등)가 지배적이다

5) 森田(1957)의 第一方法(~ŋ-ka와 같이 앞 音節의 末尾에 鼻音을 넣는 表記), 第二方法(ŋka와 같이 濁音節 子音앞에 鼻音을 넣는 表記)이다.

6) 浜田(1983), pp 1326-140.

7) |<sup>9</sup>|는 김영송(1981, pp235-277)이 제의한 「중간 자음의 경계, 선행 자음의 저지(check), 후속 자음의 경화(fortition)」와 같은 자질을 말한다.

tense 이외에 硬音에만 나타나는 자질로는 Chomsky & Halle(1968)이 제안한 glottalized이 있다.

	ㄱ	ㅋ	ㆁ
heightened subglottal pressure	-	+	+
glottal constriction	-	+	-

즉, 硬音은 glottalized로 특징지음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어 音注에 사용되고 있는 平音과 硬音의 변별적 자질도 /ㄱ/(-glottalized), /ㅋ/(+glottalized)로 보아야 할 것이다.

K C I

### 3. 한글 音注의 음성적 자질

일본어에 表記되어 있는 한글 音注는, 清音에는 平音과 硬音이, 濁音에는 平音 및 平音에 鼻音을 前接시킨 表記과 앞 音節의 末音에 鼻音을 표시한 表記가 사용되고 있다. 각 音節에 나타나는 표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清濁音의音注表記(原刊本)

カ	ガ	キ	ギ	ク	グ	ケ	ゲ	コ	ゴ
까,가	가,ㅇ-가	끼,기	기,ㅇ-기	꾸,구	구,ㅇ-구	께,계	계,ㅇ-계	꼬,고	고,ㅇ,ㅇ-고
サ	ザ	シ	ジ	ス	ズ	セ	ゼ	ソ	ゾ
사	사,ㅏ,ㄴ-ㅏ	시	시,ㅓ,ㄴ-ㅓ	수	수,수,ㄴ-수,ㄴ-수	세	세,세	쏘,소	소,소,ㄴ-소,ㄴ-소
タ	ダ	チ	ヂ	ツ	ヅ	テ	デ	ト	ド
따,다	다,ㅏ,ㄴ-ㅏ	찌,지	지,ㄴ-지	추	추,ㄴ-추	테,테	테,ㄴ-테	또,도	도,도,ㄴ-도
ハ	バ	ヒ	ビ	フ	ブ	ヘ	ベ	ホ	ボ
화,하	바,ㅏ,ㅍ-ㅏ	히	비,피,ㅍ-비	후	부,ㅍ,ㅍ-부	헤	베,페,ㅍ-베	호	보,ㅍ

清音에는 「か・さ・た」行 모두 平音과 硬音이 사용되고 있다. 硬音의 音價에 대한 설명은 주로 (1)울림[voice]의 유무, (2)후두조음-성문터짐의 유무, (3)긴장 조음의 유무로 구분되고 있다.

濁音에는 平音과 鼻音이 삽입된 平音을 사용하고 있다.

清濁音의 한글 音注에 사용되고 있는 平音, 硬音, 鼻音插入平音, 鼻音+平音의 변별적 자질을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하면 아래 표2)와 같다<sup>8)</sup>.

清音에 표기되어 있는 音注는 제1차적으로 heightened subglottal pressure(H·S·P)와 tense의 有無에 따라 [ㄱ, ㅍ, ㅌ, Q<sub>비</sub><sup>9)</sup>] [ㅋ, ㅌ, ㅍ]와 [ㄱ, ㅍ, ㅌ, 비]으로 나누고, 제2차적으로 aspirated 로 써 [ㄱ, ㅍ, ㅌ, Q<sub>비</sub>]와 [ㅋ, ㅌ, ㅍ]로 나눌 수 있다. 濁音에 표기되어 있는 音注는 제1차적으로 有聲音으로써 나누고, 제2차적으로 initial-glide로 나눌 수 있다.

8) Chomsky and Halle ; op. cit., pp 327-328.

Lee, Seung-hwan(1967); "Reconsideration for Tense vs. Lax Feature", 『語學研究』 III-1, p 66.

Kim, Chin-Woo(1967); "Some Phonological Rules in Korean" 『語文研究』 V, p 154.

김영송(1981), pp 228-234.

浜田敦(1970), pp 82-83.

9) Q<sub>비</sub>의 Q는 「いっはい 일바이([ippai])」〈原二7a〉와 같이 「ば」行에 前接하는 促音(っ)을 말한다.

<표 2>

		ㄱ ㅌ 교	ㄷ ㅌ Q타	ㄱ ㅌ 타	Δ	어 ㅌ ㅌ	ㅇ-ㄱ ㄴ-ㅌ ㄴ-ㄷ ㅌ-타	ㄴ-Δ
清濁音注表記	清音							
	濁音							
heightened subglottal pressure		++	++	-	-	-	-	-
tense		++	++	-	-	-	-	-
aspirated		++	-	-	-	-	-	-
glottal constriction		-	++	-	-	-	-	-
되기		-	++	-	-	-	-	-
inital-glide		-	-	-	-	+	++	++

일본어 학습서의 音注에서 有氣音[ㄱ, ㅌ, 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조선자료의 가장 큰 특징인 非規範性<sup>10)</sup>, 즉 音韻的 표기 보다 音聲的 표기인 점을 감안하면, 有氣音의 音聲的 자질인 H·S·P와 tense는 잉여자질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다시말해서 한글 音注의 特徵上 平音에 대한 硬音의 變別적 자질이 H·S·P와 tense라고 한다면 [ㄱ, ㅌ]이 나타나는 音節에 [ㄱ, ㅌ]표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1例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清音에 있어서 平音과 硬音表記의 變別자질을 검토하는데는 H·S·P와 tense는 잉여자질이 되는 것이다. 위 표2)에서 잉여자질을 제외하면 표3)과 같이 된다.

<표 3>

		ㄱ ㅌ 교	ㄷ ㅌ Q타	ㄱ ㅌ 타	Δ	어 ㅌ ㅌ	ㅇ-ㄱ ㄴ-ㅌ ㄴ-ㄷ ㅌ-타	ㄴ-Δ
清濁音注表記	清音							
	濁音							
glottal constriction		-	++	-	-	-	-	-
되기		-	++	-	-	-	-	-
inital-glide		-	-	-	-	+	++	++

즉, 清音에 표기되어 있는 平音과 硬音은 「glottal constriction」와 「되기」 자질의 有無로 나누어지고, 濁音에 표기되어 있는 平音과 鼻音 관련 표기는 inital-glide의 鼻音의 要素의 有無로 變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VC-V의 구성은 音素論적으로 V-CV로 환원된다. VC-CV인 경우 중간 子音이 硬音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웃-감→/ot-k'am, 듣보다→twt-p'o-ta). 일본어의 경우도 「勝って」「一杯」 등 促音 다음의 子音에서 重複자음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어의 공식이<sup>12)</sup> 적용됨으로 音注에 있어서 平音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모두 硬音으로 發音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ㄷ 段音節母音部表記、清音表記, 濁音表記, 撥音表記, 促音表記등 거의 모든 音注表記가 非規範的이다. 이것은 다른 外國資料에서는 보기 힘든 朝鮮資料만의 특징이며, 「ㄴ=ㄴ」와 같이 일본어 표기법에 맞추어서 音韻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김영송(1981, p281)에 의하면 우리나라 硬音은 울림-시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센-부 아-날숨(HSP)과 성문 압축 그리고 調音部の 긴장으로 調音되는 무성음이다.

12) 김진우(1967)는 p161에서 「Ci→[+tense]/Cf-」(i...initially, f...finally)로 공식화하고 있다

(「かって」 간데 <原四15b>, 「いっぱい」 일바이 <原二7a>).

## 4. 清音에 표기되어 있는 音注의 음성적 특징

### (1) 『伊路波』의 清音表記

「四體字母各四十七字」의 「…わかよ…」 「…よたれそ…」 「…ほへとち<sup>13)</sup>…」 및 「右各字母外同音三十三字類」의 「賀」「申」「と」「堂」등 「か・さ・た」 行의 모든 子音이 平音 /k,s,t/로 표기되어 있다. 이 경우 有聲音의 環境에서 有聲無聲의 關係가 問題점으로 남는다.

즉, 「二(ふた)」에 대해서 /hu-ta/가 表記되어 있다. 音注대로 [후다]로 읽으면 [huda]가 된다. 그러므로 [다]를 [따]로 표기하여 [da]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고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伊路波』에서는 이러한 고안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音素 연결의 순상 이행을 방지하는 요소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二」(hu-ta)가 [huda]가 아닌 [huta]로 실현되는 것은 [hu |<sup>q</sup> | ta]이었다는 것이다.

音素로서의 연결을 音聲으로의 연결에 대입시키면, 音注 연결에도 |<sup>q</sup>| 를 음성 경계표시로하여 재구할 수 있다. 이때 |<sup>q</sup>| 는 音節 경계 만큼의 「음장」「휴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휘 구성을 의식한 「말할이」의 의식에 따라서 音聲 연결에 「짧은 휴지」가 있을 경우, 分명한 경계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ふた」가 /huda/로 되지 않는 것은 /후<sup>q</sup>다/이기 때문이며, 이 때 |<sup>q</sup>| 다음의 初聲은 母音과 母音 사이에 있어도 無聲音으로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は」 行의 경우 「<sup>h</sup>표><sup>h</sup>표><sup>h</sup>」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에서, 喉頭摩擦音 [h]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변천 단계별로 用例를 배열하면, 「百(p'yak-ku) > <sup>h</sup>(wy ā), 部(wy ā)」 > 「…は(wa), 葉(wa), 飛(wi), ほ(wu), ふ(wu), ひ(wi), 不(wu), 布(wu)」 > 「二(hu-ta), 程(hon-to)」이다.

「原刊本」에서는 「は, ふ, ほ」에 喉頭摩擦音[h]가 표기되어 있고 「ひ, へ」는 兩脣破裂音[p]가 표기되어 있다. 「ひとつ(피도쥬)」 <原一18a>, 「へんじ(편시)」 <原五3b>와 같이 「ひ」「へ」만이 [h]가 아닌 [p]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sup>h</sup>(w)가 소실된 상태에서 兩脣摩擦音(w)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ひ, へ」音節은 아직 唇 齒의 資質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改修本」에서는 모두 h a, hi, hyai로 改修되어 喉頭摩擦音으로 변천되어 있다.

따라서 [ϕ]音은 後舌母音[o]부터 喉頭音化가 시작되었으며, 前舌母音 「ひ, へ」가 제일 늦게 喉頭音化한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 (2) 『捷解新語』의 清音表記

「原刊本」 『改修捷解新語』 (以下, 改修本), 『重刊捷解新語』 (以下, 重刊本)의 清音에서는 대부분 平音 /k, s, t/가 표기되어 있지만, 特定語, 特定音節에 따라서는 硬音 /kk, ss, tt/가 표기되어 있다.

「原刊本」의 「か」 行 모든 音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平音으로 표기되어 있고, 「か」 음절에

13) 「ち, つ」의 자음이 ti, tu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浜田(1952)가 지적한 대로 『伊路波』 時期에는 破擦音化([tʃi] [tʃu]) 以前의 [ti] [tu]를 나타낸 것이다.

14) 『日本方言音韻總覽』 (上野善道編, 小學館, 平成元年) 등 方言의 [ϕ]音 殘存狀態를 확인한 것에 의하면, 「ほ」音에 있어서 [ϕ]分布가 제일 적다. 『伊路波』의 例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만으로 八行子音과 母音과의 關係에서 [o]音부터 脣音性이 빨리 進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伊路波』의 例는 특정 시기에 있어서 八行子音의 動搖 實態를 알 수 있다는 것에서 중요하다.

硬音表記가 나타나는 것은, 「ばかり(12), か(二日など,12), おろかに(3), たしかに(3), しづかに(2), いか(行く,2), みちかい(2), おそかる(1), ふかからん(1), あつかまし(1), しかと(副,1)」이며, 兩表記(k/kk)가 사용되고 있는 語는 「か(助,22/88), きづかい(3/8), ふさんかい(7/8), から(助,7/16), むづかし(2/2), おうかた(2/1), かな(助,5/4), こまかに(1/1)」이다. 「改修本」 「重刊本」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いか(行く), しかと」가 「改修本」에서 平音ka로 改修되어 있다.

- (1) めてたう御さるこれあからしられ まつろくにいとらしられ われわかかてまいたれとも  
 먼데도우오사루고레앙가라시라레 만주로구니인도라시라레 와레와가가페마이따련도모  
 아롬답스외여키오르읍소 아직편히안줍소 나눈소임으로앗습거니와 <原一2b>

(1)의 경우 清音으로 생각되는 것은 下線 부분으로, 모두 平音 k가 표기되어 있다 文의 段落을 고려한<sup>15)</sup> 音環境으로도 無聲音인 「これ」의 ko와 有聲音인 「ろくに」의 ku가 모두 같은 平音k로 표기되어 있다. 즉, 「これ」의 「こ」는 無聲音 환경이므로 문제시 되지 않지만, 「ろくは[로구니]]」의 「く([구])」와 「かかて([가가떼]]」의 2번째 음절 「か([가])」는 자연스럽게 읽으면 한국어의 특성상 [gu]와 [ga]가 된다. 따라서 [gu],[ga]가 아닌 [ku],[ka]가 되기 위해서는 [로<sup>9</sup>구니], [가<sup>9</sup>가떼]의 음성적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른 예도 마찬가지이다.

硬音表記는 「原刊本」 등과 같은 실용적인 회화 학습서의 特定語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感情의 纖細한 표현을 위한 韻律的 資質(prosodic feature)이기 때문이다. 纖細한 語感의 표현으로는 소리의 長短 高低 強弱이 있는데 국어의 硬音은 強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절대로」의 /ㄷ/의 密閉를 길게 발음하게 되면 그 뜻을 強調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音注의 硬音表記도 이러한 韻律的 資質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硬音表記 만이 나타나는 「ばかり」 「たしかに」의 「か」는 會話文에 있어서 다른 「か」音節 보다 성문압축으로 인한 공기압이 강하여<sup>16)</sup> 강하게 발음된 곳이며, 그 기능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ばかり」는 12例 모두 硬音kka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비슷한 環境인 「ばかす」 2例는 모두 平音ka으로 표기되어 있다.

- (2) ひとえにみのためはかりおもうて 흥갓내히만싱각흥고 pa-kka-ri <原四16a>  
 피도에니미노다메바かり오모우데  
 (3) はかすとうくものうてひとおはかすひとちゃ 홀리는용구도업시사름을홀리는사름이읍 쪼외  
 바가수또궁구모노우데피도오바가수피돈자 pa-ka-su <原九19a>

(2)(3)을 對照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kka는 有聲化를 방지하기 위한 目的이나, 有聲音[g]에 대립되는 無聲音[k]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有聲化를 방지

15) 會話文의 日本語學習書라는 特徵을 고려해서 文의 단락을 頭部와 内部로 분석하였다. 清音에 있어서도 「われわ／かかてまいたれとも」의 경우 「かかて ka-ka-tty á」의 첫음절 「か」는 頭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한글 音注의 音聲的 環境은 無聲音이다. 한편 두 번째 音節 「か」의 音聲的 環境은 有聲音이다. 頭部와 内部의 區別은 「重刊本」의 「小點」과 會話文을 검토하여 결정하였다(「なにがし。ここゑ。こい。そなた。たいくわん。ちうゑ。いて。われわれの。こうじょうを。申そうわ」<重一1a>).

16) Kim Chin-Wu(1965, p352)파열음의 폐쇄동안 형성되는 공기압과 공기양을 측정 한 것에 의하면, 공기압과 氣流의 量 모두 ‘ㄱ<ㅋ<ㄷ’이다.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ばかす」의 「か」도 kka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ばかり」의 「か」에 표기되어 있는 硬音kka는 韻律的 자질이며, 그 音聲的 자질은 성문압축으로 인하여 口腔内の 空氣壓이 높게되는 glottalized이다.

그런데 「か(助詞), きづかい」와 같이 兩表記(k/kk)가 나타나는 例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同一語라도 會話文의 내용에 따라서 韻律的 자질이 달랐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きづかい」는 11例 중 8例가 硬音kka로 표기되어 있다.

(4) 御きづかいなされすいちにちもすきて 근심마르시고 一二日이나디나 <原五20a>  
온긴주까이나사련수이지니지모송기데

(5) かつてん御さるまいかときづかひまるする 맛당히너기시디아니실가근심흐읍느이다  
간 던 오사루마이가또긴주까이마루수루 <原五26a>

文(4)는 「きづかい」보다 「いちにちもすぎて」에 焦點을 두고 있고, 文(5)는 「きづかひまるする」에 焦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文(5)의 「か」쪽에 감정이 내재되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하였다고 생각한다. 「말할이」가 어떠한 상태를 「들을이」에게 섬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이러한 음성적 자질은 일종의 표현적 자질(expressive feature)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き」音節은 대부분 平音ki로 표기되어 있지만, 「てんき」14例 중 7例가 硬音kki로 표기되어 있다. 硬音kki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天氣も」「天氣に」「天氣にも」의 경우이며, 平音ki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天氣よう」와 같은 경우로 공기 압력이 오히려 「よう」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되는 例이다. 다만 아래 (6)(7)과 같이 音聲的 環境이 같은데 兩表記가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6)硬音kki 쪽이 明瞭하고 강하게 발음한 것이며, (7)의 ki는 「天氣」보다 오히려 「にもかまわず」쪽에 焦點을 두었다고 예상 할 수 있다.

(6) おりふしうちつけえいてんきにこれまで御わたり 마춤년호여도호天氣예예 쓰지건너시니  
<原五18b> 오라후시우지준주게예이던끼니 고레만데온와다리

(7) そのひわてんきにもかまわずしゅっせんなされうほとに 그날은天氣에도붓디아녀出船호실거시니 소  
노피와던기니모가마완수 순션나사료우혼도니 <原六12b>

「く」音節은 대부분 平音ku로 표기되어 있지만, 「わたくし(13), ごとく(8), かたく(2/1), とかく(1/2)」등 24例에서 硬音kku가 표기되어 있고, 「け」音節이 硬音kky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かたじけなし」의 1語 뿐이다(24例 중 23例). 「こ」音節이 硬音kko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みやこ」의 「こ」뿐이다(4例).

이러한 것은 모두 前述한 韻律的 자질에 속하는 것으로, 硬音表記가 나타나는 부분은 강한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다. 「改修本」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8) ていたにも御さりませうけれども まつはやうしりたう御さりまするほとに みやこわいつころ  
ろ たたしやれて こもとえわいつころつかしやると申まするか [미야코] <改五16b>

(9) みやこわなんくわちのいつかにたたしやれて ふさんにはなんくわちいつかにつかしやれて  
[미야고] <改五16b>

(8),(9)는 같은 面이고 音環境에도 차이가 없지만, (9)의 <注>가 말한 「都」는 「都」보다도 「な

んくわついつかに」가 「たたしやる」의 목적이기 때문에 「都」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말했던 반면, (8)의 <客>의 「都はいつ頃〜」에서는 「都」가 「たたしやる」의 목적이기 때문에 「都」를 분명하고 강하게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客>의 「こ」에는 강한 glottalized이 동반되었다고 생각된다.

「原刊本」의 「さ」行도 대부분 평음so로 표기되어 있다. 단 「こそ」<sup>17)</sup>와 「さいそく」(so:2例, sso:1例)에 硬音sso 표기가 나타난다

(10) さいそくしてはやいれさしられ 催促<sup>히</sup>여수이드리<sup>읍</sup>소 <原二11b>  
 사이소구시때화요이레사시라레

(11) そうなれとも さいそくしまるせう 그리커니와최촉<sup>히</sup>오리 <原三22b>  
 소우나렌도모 사이소꾸시마루쇼우

平音so로 표기되어 있는 (10)은 「さいそくして / はや / いれさしられ」와 같이 「して」가 後接하고 있어, 「て」부분을 강하게 발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은 「さいそく /しまるせう」로 되므로, 閉鎖音「く」부분에 glottalized이 동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原刊本」의 「た」行音의 音注表記도 대부분 평음to로 표기되어 있지만, 「た(過去)」(ta:35, tta:8 7), 「たれども」(ta:7, tta:11), 「たれば」(ta:5, tta:3)와 같은 特定語에 있어서는 硬音tt가 사용된 例가 있다. 특히 硬音tta는 「し」에 後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文末의 「し」에 後接하는 「た」는 glottalized 자질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かせもようふいたほとに 必<sup>름</sup>도도<sup>히</sup>부러시니 <原一8b>  
 가세모요우후이다<sup>하</sup>도니

(13) きおのはしまる<sup>した</sup>か 뜻을<sup>퍼</sup>거니와 <原一4b>  
 기오노바시마루<sup>시</sup>땅가

「ち」音節은 대부분 평음ci로 표기되어 있지만, 「こち、そち、あち」에는 모두 硬音cci가, 비슷한 音環境인 「どち、のち、はち、しち」에는 평음ci가 표기되어 있다. 「つ」音節은 대부분 평음cu로 표기되어 있으나, 「た」行의 다른 音節에 비하여 비교적 硬音ccu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あいさつ」<原一3b>등과 같이 語末의 「つ」에서는 硬音ccu가, 「いつごろ」<原一26a>, 「つしま」<原五2b>등과 같은 語頭・語中の 「つ」는 대부분 평음cu로 표기되어 있다. 「て」音節은 대부분 평音tyəi로 표기되어 있는데 助詞「て」의 402例 중 84例에서 硬音ttyəi가 나타난다. 助詞「て」의 tyəi와 ttyəi를 대조해 보면, (14)와 같이 文末「て」는 硬音ttyəi가, 文中「て」는 평音tyəi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14) はしめて<sup>て</sup>御ねんころおたのみにして 처음으로 극진<sup>히</sup>시물미더 <原一5b>  
 화시메테 <sup>옌</sup>녕교로오다노미니시때

17) 「こそ」(sso:109例)는 모두 硬音sso로 표기되어 있다. 「こそ」만이 硬音sso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安田(1990: pp36-41)는 強調形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강조하는 音節이 아닌 경우도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強調形이라고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こそ」의 「そ」에는 다른 「そ」음절 보다 glottalized의 音聲資質이 동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と」音節은 대부분 平音to로 표기되어 있지만, 「と(並列,10), なにと(3), なんと(6), ゆるりと(12), わざと(6)」는 硬音 tto로 표기되어 있고, 「と(引用,to:16, tto:168), とも(to:7, tto:18), なにとぞ(to:3, tto:3)」은 平音to과 硬音tto의 兩表記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 외에도 「うかと, なにかと, とくと, さっぱりと」등이 硬音tto로 표기되어 있다<sup>18)</sup>. 이상의 「ち,つ,と」의 平音表記와 硬音表記의 變別적 資質은 前述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



---

18) 「と」에 관해서는 安田(1977), 荒木(1975)가 있지만, 兩表記의 表記上の 制約에 관해서는 問題점을 남기고 있다.

## 5.濁音에 표기되어 있는 音注의 음성적 특징

### (1) 『伊路波』의 濁音表記

『伊路波』의 音注表記는 「イロハ」歌의 읽는 방법도 문제가 되겠지만<sup>19)</sup>, 「う」音注表記 방법으로 보아서 「常の伊呂波をよむ聲」<sup>20)</sup>로 7音節씩 연속해서 읽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我がよたれぞ」의 「が、ぞ」는 濁音이 아닌 清音「か、そ」로 보아야 할 것이다.

「ぎ」行으로 생각되는 「四體字母各四十七字」의 「…えひもせ<sub>づ</sub>…」는 鼻音이 삽입된 n-zu로 표시되어 있다<sup>21)</sup>. 「だ」行으로 생각되는 「別作十三字類」의 「程」 「めで」는 각각 /hon-to/, /myə n-tyə/로 표기되어 있어 鼻音이 삽입되어 있다. 「ほど」는 /ho-to/로 표기하고 읽어도 [hodo]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鼻音n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濁音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鼻音的 要素를 나타낸 것이다. 「ば」行으로 생각되는 「別作十三字類」의 「はば」도 鼻音이 삽입된 /ham-pa/로 표시되어 있다.

『伊路波』의 濁音에 표시되어 있는 音注는 모두 鼻音이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濁音의 모든 音節에 鼻音的 要素가 존재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기의 清濁 구분은 鼻音이 변별적 要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捷解新語』의 濁音表記

「原刊・改修・重刊本」의 「ガ」行音節은 語頭環境에서 平音k, 内部環境에서는 鼻音이 삽입된 ~ŋ-k표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音注表記의 분포는 아래 표4)와 같다<sup>22)</sup>.

<표 4>ガ行音注分布

19) 「う」音注에 「脣輕音口」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直前の 「む」音節의 影響으로 鼻母音化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七・五調로 읽으면 「…つねならむ／うるのおくやま…」와 같이 「う」앞에서 끊기기 때문에 「う」音注는 'u로 표기했을 것이다. 즉 [mu u]가 [mu wu]처럼 脣音同化를 일으킨 것이므로 「らむうるのおく」와같이 7音節씩 읽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 イロハ歌의 읽는 방법은 馬淵和夫 「いろはうたのアクセント」(『日本韻學史の 研究II』pp1122- 1123)에서 契沖의 『倭字正濫通妨抄』의 序를 인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간단히 재인용하면 2종류가 있는데, 第1種은 「常のいろはをよむ聲」라고 하며 「い」「ろ」「は」와 같이 의미와 관계없이 그대로 읽지만 마지막 「す」만 濁音으로 읽는 것이며, 第2種은 「根本伊呂波」라고 하며, 노래로서의 意味가 있으며 7・5調로 읽고 濁音도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다

21) 「す」에 대해서 zu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えひもせず」보다도 「えひもせ<sub>づ</sub>」로 읽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濱田(1952)에서도 「鼻音의 入り渡り」를 언급하고 있지만, 濁音 「ず」를 표기하기 위한 zu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 音節에 鼻音n을 삽입한 것은 濁音節 앞에 鼻音的 要素가 존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22) 音注分布表는 音注表記의 음성적 특징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分布를 참고하기 위하여 趙炯熙(2000)에서 인용하였으며, 用例數를 재차 확인하여 수정한 곳도 있다.

	頭 部						內 部								
	原刊本		改修本		重刊本		原刊本			改修本			重刊本		
	ŋk	k	ŋk	k	ŋk	k	ŋ-k	ŋk	k	ŋ-k	ŋk	k	ŋ-k	ŋk	k
ガ	0	6	0	5	0	2	318	0	7	299	0	16	116	90	1
ギ	0	9	0	15	13	1	112	0	0	70	0	2	16	38	1
グ	0	2	0	2	0	2	93	0	6	69	0	14	2	65	7
ゲ	0	19	0	11	0	7	43	0	1	57	0	6	11	28	1
ゴ	447	5	568	13	475	15	74	11	2	67	0	21	89	0	2

표2)의 頭部 환경에서는 平音k가 표기되어 있지만 「ご」와 「重刊本」 「ぎ」 만이 例外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頭部 환경에서 平音/k/는 無聲音으로 실현된다. 濁音表示로 이용해도 될 것 같은 [오](「ご」음절의 표기)表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平音k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清濁을 音聲의으로 구분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音注表記는 音を 듣고 다른 「音의 觀念」으로 文字化할 경우, 變別적 자질은 항상 상대적 개념에 의해서 대표적인 것만 성립되며, 나머지는 잉여자질이 된다. 當時도 일본어 音を 듣고, 한글로 文字化하는데 있어서 無聲音 對 有聲音 보다 無聲音 對 鼻音要素와 有聲音 對 鼻音要素의 대립이 컸으므로 큰쪽을 대표 자질로 삼은 결과이다.

「が」行 頭部環境의 平音/k/는 無聲音[k]이다. 이 경우 「ご」음절에 있어서는 「ごきない(五畿内)」 <原九21b>의 5례가 [고]이고, 「御」(447例 모두 [오]인 것으로 보아 「御」에는 語頭 이지만 鼻音的 要素가 존재했으며, 이것은 그것을 轉寫한 것으로 보인다.

內部環境에서는 대부분 ŋ-ko로 표기되어 있다. 「原刊·改修本」의 「が」行 音注로 사용되지 않았던 ŋko의 표기가 「かいご(雞子)<原二9b>, 十五(じうご)<原六11a>」 등에서 11例 나타난다. [가] <고>로 하지 않고, [가이오]로 표기한 것은 [가이<sup>o</sup>오]로 읽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가이<sup>o</sup>고]는 「かいんご」로 실현되므로 「かい<sup>o</sup>ご」를 나타내기 위한 音注表記로는 [가이오]가 적절했을 것이다.

「重刊本」의 ŋk표기는 「原刊·改修本」과는 표기의 방침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濁音에 鼻音的 要素가 존재했던 「改修本」까지는 濁音을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표기가 없어도 清音 對 鼻音要素로 清濁을 구별하는데 큰 애로점은 없었다. 이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音注表記도 있지만, 그것은 數的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重刊本」에서 부터는 鼻音的 要素가 상당 부분 消失되었다. 鼻音要素가 소실된 상태에서 清濁을 구분하는데 ŋk와 같은 별도의 표기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15)같은 鼻音的 要素는 ŋ-k, (16)같은 鼻音的 要素가 상실된 상태의 濁音은 ŋk, (17)같은 清濁音의 혼돈에서오는 誤謬는 k로 표기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5)ろしのくたひれか御さって 路次の 衞馬 <重一 1a>  
로시노구다비 령가오산데
- (16)めてたさかきりも御さりませぬ 이롬답기그지업<sup>o</sup>이다 <重八23a>  
메메다사가인리모오사리마세누
- (17)たんこのくにおこくん 丹後州の 五郡<重九15b>  
단고노구니와 교군

「ぎ」行은 頭部에서는 대부분 s의 有聲音z로 표기되어 있다<sup>23)</sup>. 內部の 「ぎ」行은 音節에 따

라 차이는 있지만, n-z, z, n-s, s의 4종류의 音注가 사용되고 있다. 그 분포는 표5)과 같다<sup>24)</sup>.

<표 5> ザ行音注分布

	頭部						内部											
	原刊本		改修本		重刊本		原刊本				改修本				重刊本			
	z	s	z	s	z	s	n-z	n-s	z	s	n-z	n-s	z	s	n-z	n-s	z	s
ザ	4	0	5	0	5	0	6	0	283	10	0	0	410	8	0	0	331	3
ジ	54	2	52	6	52	0	6	0	164	31	0	0	263	24	0	0	210	3
ズ	0	6	5	3	5	0	55	17	1	10	0	0	22	6	0	0	55	1
ゼ	13	1	9	0	7	0	0	0	49	1	0	0	47	7	0	0	47	0
ゾ	71	0	12	0	97	0	8	1	13	1	0	0	26	0	0	0	28	0

「ざじずぜぞ」音節은 대부분 za로 표기되어 있지만, 「原刊本」에서는 特定語의 内部環境에 있어서 鼻音이 삽입된 표기가 나타난다.

(18) 御やおわさとこしらいて 방샤를부리출혀 <原六 15a>

오안도오완샤또고시라이데

(19) われらめいわくおほうしきしられかな 내迷惑을프르시과다 <原一 30a>

와레라메이와구오호운시사시라레카나

無聲音/s에 대한 有聲音/z가 독립된 音素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鼻音이 삽입된 n-za의 표기가 나타나는 것은 特定語에는 鼻音的 요소가 아직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わざと」와 같이 同一語에 兩表記(n-za 6例, za 13例)가 나타나는 것은 鼻音的 요소가 動搖되고 있는 시기로, 會話文에 따라서 鼻音的 요소가 動搖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有聲音/z가 존재함으로 「ざ」行濁音의 표기는 z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有聲音 표기가 존재하는 「ざ」行은 清音對濁音은 有聲·無聲이 변별적 요소이었으며, 濁音對鼻濁音은 鼻音要素가 변별적이었다.

「だ」行音은 頭部環境에서는 대부분 平音t로 표기되어 있지만 「だ, ど」에만 鼻音表記가 삽입된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 内部環境에서는 「原刊本」의 경우 대부분 鼻音이 삽입된 ~n-t의 표기가 사용되었으며, 平音t는 特定語에 한해서 일부 사용되고 있다. 鼻音이 삽입된 표기는 「改修本」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重刊本」에서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 분포는 아래 표6)와 같다<sup>25)</sup>.

<표 6> ダ行音注分布

23) 頭部에서 「ず」(隨), 「じ」(時節), 「ぜ」(膳)가 平音s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24) 音注分布表는 音注表記의 음성적 특징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分布를 참고하기 위하여 趙燭熙(2000)에서 인용하였다.

25) 音注分布表는 音注表記의 음성적 특징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分布를 참고하기 위하여 趙燭熙(2000)에서 인용하였으며, 用例數를 재차 確認하여 수정한 곳도 있다.

	頭 部						内 部								
	原刊本		改修本		重刊本		原刊本		改修本		重刊本				
	nt	t	nt	t	nt	t	n-t	nt	t	n-t	nt	t	n-t	nt	t
ダ	4	23	3	52	0	52	118	0	11	7	0	166	0	93	46
ヂ	0	0	0	0	0	0	2	0	2	1	0	13	0	0	5
ヅ	0	0	0	0	0	0	101	0	4	8	0	102	0	0	96
デ	0	1	0	3	2	0	198	0	5	1	0	141	0	41	175
ド	8	23	19	14	12	18	432	0	13	22	3	276	0	31	229

頭部環境의 nt표기는 (20)와 같이 會話文의 頭部에서 나타난다. 같은 「だんかう(談合)」의 語頭環境이라도, (21)과 같이 頭部の 環境이 아닌 「だ」音節은 t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어의 /다/는 語頭에서 無聲音이 되기 때문에 /だ/가 清音/た/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안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22)과 같이 語頭에서도 대부분 平音t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

- (20) たんかうすることともさうたんすれは 談合홀일들이나상담히면 <原二13a>  
 ㄴ당교우수루고돈도모쇼운단 수레마
- (21) そさえたんかうして 送使의 談合 히여 <原四 27a>  
 소사에 당교우시때
- (22) たいいっせん なかもとりふねいっそう 第一船中歸船一隻 <原四 7b>  
 다이일선 나가몬도리후너 일소우

이러한 표기는 「ど」음절에서도 나타나는데, 「ど」도 頭部에서는 平音t로 표기되어 있지만, nt표기는 모두 「どこ、どち」등 不定稱代名詞와 「どうぐ(道具)nto-'uj-ku<-13ウ>」의 特定語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즉 頭部環境에 있어서 清濁을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입한 표기는 없으며, 「が」행의 音注表記과 같이 鼻音的 요소의 有無에 따라 音注를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内部環境의 「だでど」음절은 대부분 앞 음절에 鼻音이 삽입된 n-t의 표기이다. 鼻音的 要素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原刊本」에서의 平音t의 표기는 (23)의 「みだて(見立)」등 4語에서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特定語에 있어서는 鼻音이 消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3) そのみだてわろう御さるほとに 그불골사오나오니 <原五23b>  
 소노마다테와로우오사루혼도니

「改修本」에서 대부분 /t/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だ」행의 有聲音을 표기하기 위한 고안은 없으며, 清濁을 구분하지 않고 「た・だ」행을 /t/로 표기하고 있다.

「重刊本」에서는 n-t가 나타나지 않고 nt가 새롭게 나타난다. 鼻音的 요소가 완전히 消失된 상태에서는 清音對 鼻音要素와 濁音對 鼻音要素의 대표적인 대립 자질도 消失되고, 清音對 濁音을 대표 자질로 삼은 결과이다. 하지만 清音과 濁音을 規範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는 않았다. (24)와 같이 t로 표기해도 한국어의 특성상 [tadasi]가 되는 부분은 t로 표기하고, (25)와 같이 t로 표기하면 無聲音[tat'atat'al]가 될 염려가 있는 부분은 nt로 표기되어 있다.

- (24) たたしあすのしゅっせんに 다만 니일 出船의 <六26a>  
 다다시아스노쉴센니

- (25) たたたわれわれの申やうに 그저그저 우리 읍늬대로 <四 28b>  
다따다따와레와레노루시요우니

「ば」行는 /ㅎ/과 /ㅂ/이 形態音素論的 關係를 형성하기 때문에 「は」와 「ば」가 혼동될 염려는 없다. 따라서 ha는 「は」, pa는 「ば」, m-p·mp는 鼻音的 要素를 轉寫한 것이다.

- (26) さかつきはかりあけるおれいおしまるせう 잔쑤들기를禮를삼습새 <原三9b>  
사간주기바까리양계루오레이오시마루쇼우  
(27) そのひわおしらるにおよはす 그날란 니르시매 밋디아나 <原八 25b>  
소노피와오시라루니 오욘만수

## 6. 결 론

일본어의 清濁 音節에 표기되어 있는 한글 音注를 분석하여, 음성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日本語의 音を 듣고 文字化할 때 清音對濁音보다 清音對鼻音的 要素의 對立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清濁이 有聲音과 無聲音의 代립이 아닌 平音對鼻音的 要素의 對立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鼻音要素의 消失에 의해서 「重刊本」부터는 /ŋk(ㄱ),nt(ㄴ)/와 같은 表記를 사용한 有聲對無聲의 對立이며, 表記法은 音韻的이 아닌 音聲的이었다.

(2) 清音에 표기된 硬音表記와 平音表記는 [glottal constriction]가 변별적 자질이고, 濁音에 표기된 鼻音表記와 平音表記는 [inital-glide]의 鼻音的 要素가 변별적 자질이다.

(3) 清音에 표기되어 있는 硬音表記는 「말할이」가 「들을이」에 意思를 전할 때 이용하는 자질로 感情을 자세하게 表現하기 위한 韻律的資質(prosodic feature)이고, 濁音에 표기되어 있는 鼻音表記는 [inital-glide]의 鼻音을 轉寫한 표기이다.

(4) 한글 音注에는 다른 外國資料에는 나타나지 않는 韻律的資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會話文에 있어서 音聲的 特徵의 정도를 알 수 있다.

(5)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原-1ab>를 小段落에 26) 준해서 음성적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은 小段落, |'은 후속 子音의 硬化).

なにかし。こち。こい。そちか。たい|くわんに。いて。みか。申  
나닝가시 고히 고이 소징가 다이 관 니 이땀 밍가 무수  
[naniŋgasi koʃi koi soʃiŋga taikwanni itt'e miŋga mousu]  
おとつゐ。ここもとゑ。くたて  
오|도쥬이 고히고모|도예 군다땀  
[ot'otsui kok'omot'oe kundat'e]  
きのうにも。まいるお  
기노우니모 마이루오

26) 「重刊本」에 있는 [。]의 小點과 文型을 기준하여 段落을 구분하였다.



[kinounimo mairuo]

ろしの。くたひれに。いま。こそ。もんまで。まいて。こそ。御され  
로시노 구<sup>이</sup>다비레니 이마 고힌 몬만데 마이떼 고힌 옌사레  
[rofino kut'abireni ima kos'o monmande mait'e kos'o ŋozare]  
うちに。御さらは  
우지니 옌사라바

[uʃini ŋozaraba]

まいると。あんない。こそ。申まる。すれと。ゆうて。こい  
마이루또 안나이 고힌 무시마루 수레또 유우<sup>이</sup>테 고이  
[mairut'o annai kos'o mouʃimaru suret'o yu:t'e koi]

K C I

## [参考文献]

- 姜吉云(1952)「初声並書攷」『国語国文学』13
- 金敏洙(1953)「各自並書 音価論」『国語国文学』4
- 金錫得(1974)「없어진 글자의 상고」『나라사랑』14, 외솔회
- 金善琪(1933)「硬音의 本質」『한글』1-9
- \_\_\_\_\_(1972)「東国正韻의 ㅁ ㅂ ㅅ의 음가」『한글』150
- 김영송(1981)『우리말 소리의 연구』과학사, pp235-277
- 吳貞蘭(1988)『硬音稅 国語史的 研究』翰信文化社, pp110-133
- 禹敏植(1989)「15世紀 国語稅 初声並書 研究」中央大博士学位論文
- 李南德(1968)「15世紀 国語의 된소리 考」『李崇寧博士頌壽記念論叢』
- 이승녕(1954)『国語学概說(上)』進文社, p148
- 최현배(1929)『소리갈』정음사, pp72-82
- 天昭寧・大坪一夫・水谷修(1987)『日本語音声学』くろしお出版, pp59-77
- 荒木雅実(1975)「捷解新語の並書法について」『国語研究』38, 国学院国語研究会
- 上野善道(1977)「日本語のアクセント」『岩波講座 日本語5 音声』
- 梅田博之(1983)『韓国語稅 音声学的 研究』蜚雪出版社, p178
- 遠藤邦基(1977)「濁音減価意識」『国語国文』46-4, 京都大学
- 大倉進平(1928)「朝鮮語のtoin-siot」『岡倉先生記念論文集』
- 大友信一(1956)「捷解新語に見られる濁音表記」『言語研究』30, 日本言語学会
- 河野六郎(1952)「『伊路波』の諺文標記について」『国語国文』21-10、京都大学国文学会
- 趙 燭熙(2000)「鼻濁音の喪失過程について」『国語論稿』28, 岡山大学
- 土井洋一・浜田敦・安田章(1959)「倭語類解考」『国語国文』28-9, 京都大学国文学会
- 浜田 敦(1970)『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岩波書店, pp78-83
- (1983)『続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臨川書店, pp126-140
- 安田 章(1990)『外国資料と中世国語』三省堂, pp36-41
- Chomsky, N & Halle, M.(1968) ;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pp 315-29
- Kim, Chin-Woo(1965)“On the Autonomy of Tens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 with Special Reterence to Korean Stops” Word 21-3, p 352

## 【要 旨】

朝鮮資料の清濁音に記されている音注を分析し、その音注の背景にある音声的特徴を明らかにした。その結果、(1)日本語の音を聞いて文字化した時、清音対濁音より清音対鼻音的要素の対立が大きかったから、清濁が有声音と無声音の対立ではなく、平音対鼻音的要素の対立で記されている。なお、鼻音要素の消失したがつて「重刊本」からは /ŋk(ŋ) ,nt(ɯ)/のような表記を用いる有聲対無聲の表記であり、表記法は音韻的ではなく音声的であった。

(2)清音に記されている硬音表記と平音表記は[glottal constriction]が弁別的資質であり、濁音に記されている鼻音表記と平音表記は[initial-glide]の鼻音的要素が弁別的資質である。

(3)清音に記されている硬音表記は、「話し手」が「聞き手」に意思を伝えるときに利用する資質で、感情を細かく表現するための韻律的資質(prosodic feature)であり、濁音に記されている鼻音表記は[initial-glide]の鼻音を写した表記である。

(4)ハングル音注には他の外国資料には見られない韻律資質を持っているので、会話文における音声的特徴の程度が把握できる。

주제어 : 清濁音, 清濁의 音注表記, 清濁의 음성적 특징, 音注表記의 변별적 자질  
韻律資質, 音注 가능

투 고 : 2002. 11. 25  
2차 심사 : 2002. 12. 14  
3차 심사 : 2003. 1. 14

住 所 : (540-742) 전남 순천시 매곡동 215번지 순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61-750-3454

E-mail : ghcho@sunchon.ac.kr